

영광군,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순풍



영광군은 불법어업 단속, 해난 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다양한 해양수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7월 취항을 목표로 다목적 행정지도선을 건조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어업 단속·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 등 해양수산 행정서비스 제공...내년 7월 취항

관리 측면과 선체 구조 디자인, 복원성, 배지도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의논하였다. 행정지도선은 56톤 규모로 길이 27.45m 너비 5.5m, 깊이 2.5m 최대 35명까지 승선할 수 있으며 선체 규모에 맞게 1925마력 고속디젤엔진 2기와 워터제트 추진기 2대를 장착해 최대 27노트(시속 51km)까지 운항할 수 있으며, 최첨단 장비(항해, 조명, 통신, 경보) 탑재와 디자인과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그간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추진계획을 지난해 6월에 수립한 이후 투자 심사(19. 7월), 특교세 15억

확보(19. 9월), 실시설계 발주(19. 12월), 주요장비선정위원회(20. 2월), 중간보고 3회, 실시설계 사전승인(20. 7월) 등 사전절차 이행과 건조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그간 노후된 어업 지도선으로는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등에 한계가 많았다"며, "디자인과 편리성을 겸비한 다목적행정지도선 건조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대민지원 행정서비스 강화와 해난사고에 대한 우려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2018년 목포항구축제 어등터널

목포시, '2020 목포항구축제' 취소

코로나19 확산 시민안전 고려

목포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2020 목포항구축제를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 방침을 준수하고자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해 2020 목포항구축제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잡았다.

시와 추진위는 애초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우선해 소규모 축제 개최를 고심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축제 취소 대신 목포를 자발적으로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리라성 이벤트 행사, 특산물 판매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0 목포항구축제를 통해 낭만항구 목포의 조선, 근대, 현대 시대의 역사를 다채롭게 선보이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내년 축제는 더 많은 준비 기간이 생긴 만큼 흥미롭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항구축제는 올해 초 2020~2021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 2020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김정환 기자

무안군,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무안군은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50여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표를

작성하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발열 여부, 숙소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공용공간과 다기능 활동 공간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여부 등 34개 항목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시 대처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외국어로 표기된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선정...내년부터 3년간 120억 투입

신안군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20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형 지역성장 공모사업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로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군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가운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4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신안군은 중부권(자은, 안태, 팔금, 안좌)에 2021년부터 3년간 도비 5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휴게소 개념의 1004헥타를 조성한다.

섬길역이란 육지의 철도처럼 섬과 섬을 연결한다는 뜻이며, 관광객들을 위한 도서특산물판매장, 섬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점, 관광휴게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도 함께 조성된다.

세부사업은 자은 팥공판데, 안태 천사섬역, 팔금 꾸찌뽕센터, 안좌 양파랜드,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팔금 관광어시장이 들어선다.

군은 건축물 컨셉에 특별히 신경썼다. 팥공, 꾸찌뽕, 양파 등 지역 농산물을 형상화한 독특한 건축물로 건물자체를 또 하나의 관광 포인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본래 모습 되찾은 영산호

목포시, 집중호우 수해쓰레기 수거 총력

목포시가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에 쌓인 수해쓰레기 수거에 총력을 다해 9일 만에 영산호의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지난 7일부터 전남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영산강 상류 지역의 3,000톤에 달하는 초목류, 생활쓰레기가 영산강 하구로 떠내려와 전남가누경기장에서 남약방면으로 2.3km구간을 덮었다.

목포시는 지난 13일부터 예비비

1억원을 투입해 수거작업의 신속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갈 경우 해양의 영향으로 수거방법도 어렵고, 처리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해쓰레기 파쇄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하고자 방역작업에도 힘썼다. 휴일도 반납한 채 총력을 펼친 결과 9일 만에 수거작업을 마무리 해 영산호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군-함평농협, 침수벼 긴급방제 실시

함평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농협중양회함평군지부와 긴급방제작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기록적인 장마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세균성 병·해충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출수가 대부분 완료되는 이달 말까지를 집중 공동방제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지역 곳곳의 침수벼에서 흑명나방·떡도린재 등의 해충과 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 등의 역병 발생이 잇따르는 만큼 쌀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군 농협과 공동방제작업을 긴급 결정했다.

군은 이번 작업에 총사업비 2억 5천여만 원을 투입,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

벼 재배지 1,260ha에 대해 병해충 집중방제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방제작업을 위해 전남도는 예비비 7천5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농협중양회함평군지부에서도 공동방제단 구성과 긴급방제에 필요한 5천여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김동표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벼 재배지 대부분이 출수기 전 수잉기에 큰 피해를 입으면서 불완전 출수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방제작업과 함께 농업환경기술지원단을 피해현장에 급파하는 등 지역 내 벼 수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확은 생애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